

'ㄱ'자형 교회 건축에 관한 연구

홍 승 재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이 명 관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1. 서론¹⁾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일세기 동안 다양한 교회건축 유형을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 중 초기교회에서 볼 수 있는 'ㄱ'자형 평면의 교회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초기 교회의 가장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남자 신도석과 여자 신도석을 양쪽에 분리하여 직각으로 배치하고 두 축이 만나는 우각부에 강단을 설치한 'ㄱ'자형 교회는 남녀유별의 당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발생한 독특한 평면 형태이다.

기존의 연구와 자료 등에 의하면 초기 교회에서 'ㄱ'자형 교회는 상당수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도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옛 교회의 형태는 거의 없어지고, 문헌이나 사진 자료만을 통하여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다행히 전북지방에는 2개의 'ㄱ'자형 교회가 현존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위치한 금산교회(1908년)와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소재의 두동교회(1929년)는 모두 'ㄱ'자형 한옥교회로서 초기 교회건축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두 교회에 대한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자료에 나타나는 'ㄱ'자형 교회등을 비교 고찰하여 그 동안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오던 'ㄱ'자형 교회건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개신교의 전래와 'ㄱ'자형 교회의 건립

오랫동안 쇠국정책을 견지해 왔던 조선은 1876년 개항과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하면서 점차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5월에는 미국공사관이 설치되었고 1884년에는 영국, 독일 등과도 조약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과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급격히 밀어 닥치던 때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앞세우고 선교사들이 입국하며 개신교가 전래된다.

실제적으로 개신교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된 것은 김옥균의 주선으로 일본에 주재하고

1)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있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매클레이가 1884년 조선을 방문하여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종 황제에게 허락을 받는 데서부터이다.²⁾

그해 9월에 미 북장로교 소속의 알렌(Horace N. Allen) 선교사가 입국하였다. 그는 한국에 상주했던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민영익을 치료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이듬해 광혜원을 설립하게 된다.

1885년에는 북감리교의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처와 북장로교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입국을 계기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내한하였으며, 후일 호주장로교, 영국 성공회, 미국 남장로교와 남감리교, 캐나다장로교 및 침례교 등의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선교활동 과정에서 선교회들은 연합체를 형성하고 선교지역 분할정책³⁾에 따라 각 나라 선교회에 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였고, 선교방법으로는 네비우스 정책을 기

본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네비우스 정책의 네 번째 항목의 '토착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한국선교는 한국 실정에 맞는 교회의 설립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의 가톨릭 선교가 謀逆의 宗旨로 낙인찍힌 자리에 개신교가 취할 정책의 방향은 한국의 전통과의 연속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선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는 실학의 대두와 서양문명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 사상과 구체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상을 전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도 '남녀유별' 등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기독교 전래 초기에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녀유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대개 처음에는 선교사 사택이나 기존의 한옥을 구입하여 예배를 보았는데, 그때는 남녀가 예배시간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방에서 나뉘어 예배를 드렸다. 교인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옥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게 되는데 평면적으로 남녀회중석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었던 ㄱ자형 교회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상당수 건립되었음을 현존하는 2개의 ㄱ자형 교회와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3. 현존하는 ㄱ자형 교회

3-1. 금산교회

(1) 교회 역사

금산교회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위치한다. 미국 남장로교회 전주 선교부의 테

하게 하여 이웃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되 좀더 나은 자질이 발견된 사람은 별도로 둔다. 4. 본토인들로 자기네 교회당 건물을 마련하게 하되 그 건물은 토착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역 교회가 능히 꾸밀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지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서울:1989년), p220

2) 이만열,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기독교문사, 1993. p.45

3) 1893년 公議會에서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사이의 협정에 의해 선교지역을 분할한 것이다. 교계예양(敎界禮讓)으로도 불리는 선교지역 분할협정은 하나의 나라에 여러 교파 선교회가 진출하여 선교함으로써 야기 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협정은 인구 5천 이상의 대도시는 공동 점유하되 그 이하의 도시와 지방들은 그때 당시로 선교회의 지휘를 받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를 보아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것을 선교회지역 분할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 같은 협정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선교회 뿐 만 아니라 다른 선교회들 사이의 선교회 지역 분할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었다. 장로교 선교회들간의 선교지역 분할 협정은 '장로교 연합 선교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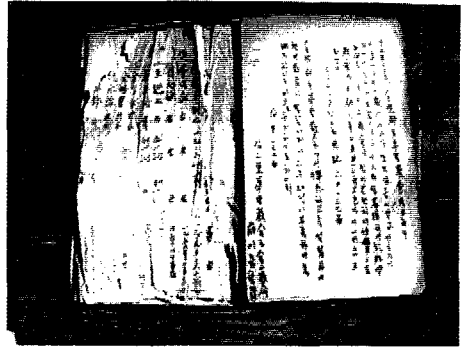
4) 언더우드가 4개 항목으로 정리한 네비우스(J. L. Nevius)의 선교방법. "1. 각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형편에 거하게' 하며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어 자기 이웃들 속에 살면서 스스로 생업을 꾸려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2. 교회의 방법이나 조직을 토착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3. 교회 스스로가 가능한 한 인력과 재정을 공급

이트(Tate, Rev. Lewis Boyd : 崔義德, 1862 - 1929년)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호남지방은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구역이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서남부지역인 서천, 보령, 한산, 부여, 장항 등은 미국 남장로교회의 관할이었고, 북장로교회는 서울, 평양, 부산,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1892년이다. 1894년 2월 미국 남장로교회 제 2차 선교사 월례회에서는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Tate, Miss Mattie Samuel : 최마태, 1864 - 1940년) 선교사를 전주에 상주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선교부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철수하게 되며, 테이트 선교사는 전주가 평온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1895년 3월 18일 레이놀즈(Reynolds, Rev. William Davis : 이눌서, 1867 - 1951년) 선교사와 이씨라는 어학교사 겸 조사와 함께 전주에 내려와 성문 밖의 은송리 언덕에 초가를 구입하여 다시 선교부를 열었다. 그는 전주에서 이곳 금산까지 말을 타고 오십여리 길을 왕복하며 전도하였다. 이 때 이자익, 조덕삼, 박화서, 왕순칠, 강평국 등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1905년 금산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⁵⁾

당시에는 금산교회를 두정리(豆亭里)교회, 금구 밭정교회 또는 팻정리교회라고 불렀다.⁶⁾ 이곳을 옛날에는 팻정리라고 불렀으며, 두정리는 팻정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1920년대까지 두정리 또는 팻정리교회로 불렸으며, 1930년대 이후 금산교회라는 지금의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금산교회 당회록

금산교회가 설립된 1년 후 1906년에는 교회 내에 유광(繡光)학교를 설립하여 청년 교육을 시작하였다.⁷⁾

처음 교회는 5칸이었다. 신자가 점차 늘면서 1908년에 지금의 'ㄱ'자형 한옥교회를 새로 지었다. 배제(梨峴)에 있던 전주 이씨 문중의 재실을 옮겨 지은 것이라 전해진다. 기둥 등에서 구(舊)부재를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그 해 4월 3일에 상량하였다. 1913년 예수교회보에 의하면 수년 전에 신자수가 이미 이삼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⁸⁾

한국교회가 탄압을 받던 일제 말엽에 유광학교와 금산교회는 강제 폐교를 당하였다. 당시 교회를 이끌던 조영호 장로가 한글을 가르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다시 문을 열었으나 이전보다 교세는 많이 축소되었다.

1988년 유광학교가 있던 자리에 2층의 벽돌조 새 교회를 짓고, 舊교회 서측에 사택을 건축함으로써 ㄱ자형 한옥교회는 현재 주일학교 교육관 등으로 가끔 사용되고 있다. 1997년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 136호로 지정되었다.

5) 금산교회 소장 당회록 및 김수진, 전북개신교 100년사, 전북일보, 1994년 8월 26일

6)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 p.137

「1905년에 金堤郡 豆亭里教會가 成立하다. 先是에 本處 敎人 李自益, 趙德三等이 믿고 引導者가 되야 熱心傳道함으로 數人의 信者를 得하여 禮拜堂 5間을 新築한 후 教會가 漸次發展되야 任實 三吉 教會와 本郡 九峰里教會가 此에 分立하얏 나니라.」

7) 上揭書, p.177

8) 예수교회會報, 大正二年(1913년, 癸丑) 三月 十八日



(사진 2) 금산교회 전경

(2) 건축개요

금산교회는 'ㄱ'자형 한옥교회이다. 자연석을 한 단 놓아 낮게 기단을 조성한 후 그 위에 덩벙 주초를 놓고 방주(方柱)를 세워 교회를 지었다.

교회는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여 5칸을 앉히고, 여기에 동측으로 2칸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ㄱ'자가 뒤집힌 평면형태를 이룬다. 남쪽의 장축부는 남자 신도석이고, 동쪽은 여자 신도석이다. 즉, 남녀 회중석을 분리하여 남녀가 나뉘어 예배를 보도록 한 것이다.

장축과 단축이 직각으로 만나는 북서쪽 모서리 한 칸에는 강단을 설치하였다. 강단은 두단의 계단을 두어 회중석 보다 470mm 높게 구성하였다. 강단의 전면 동쪽 끝에는 하나의 원주가 있다. 유일한 내진기둥인 이 기둥은 보를 받치고 있는데, 동서 방향의 중도리 및 회침부의 사래가 이 보 위에 얹혀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조적인 기능보다도 이 기둥을 중심으로 평면이 꺾이는 앞쪽 모서리 기둥과 강단 뒤쪽 벽면 기둥 사이에 휘장을 쳐서 남녀 신도가 서로 볼 수 없도록 하였던 중요한 기둥이다. 이처럼 강단과 여자 회중석 사이에도 휘장을 쳐서 설교 때 강단의 목사도 여자석을 볼 수 없었으며 강대상도 남자석을 향하여 배치하였다.

남녀의 출입구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남

측 박공면에 남자의 출입문이 있고, 동측 박공면에 별도의 여자 출입문이 있다. 모두 두 짝 세살문으로 되어 있으며, 강단 뒤쪽에는 목사의 출입을 위한 별도의 작은 쪽문이 있다.

교회 내부는 입구를 제외하고 바닥 모두에 장마루가 깔려 있다. 공간 전체가 통칸으로 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보칸의 길이가 남자석 5,000mm이고, 여자석은 5,060mm로서 남자석 보다 2치 정도 길게 간살을 잡았다. 대개 한옥에서 이 정도 규모이면 내부에 고주를 세우는 것이 보통이나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통칸으로 구성한 것이다.

가구는 5량구조이다. 자연스런 목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연등천정이다.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치고 그 위에 바로 종보가 겹쳐지듯 얹혀지며, 다시 낮게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므로 지붕의 물매가 완만하다. 지붕은 훌처마 우진각 지붕인데 본래 초가였다. 1920년대에 함석지붕으로 바뀌었고, 해방 후 지금과 같이 시멘트 기와를 얹었다.

남녀 회중석 상부의 중도리 하단에는 상량문이 남아 있다. 남자석은 한문으로, 동쪽 부분 여자석에는 한글로 별도의 상량문을 기록하였다. 남자석 상부의 상량문은 먼저 1908년(戊申) 4월 3일의 상량일자를 적고 다음에 문리역(文理譯) 한문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그대로 옮겨 썼다.⁹⁾

상량문은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기리는 來世指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여자석 상량문¹⁰⁾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기록

9) 「一千九百八年戊申陽四月三日 上 我知此身猶土室 幕雖壞然有上帝經營非手所作之室悠久於千吾處此 歎息欲得自天而降之室若衣被體既得其衣體不復裸 吾尚處此幕勞而嘆息非欲去之乃欲得其室致死了而 生存爲我行此者上帝賜聖神爲質心恒安 후고 五〇 - 노 六-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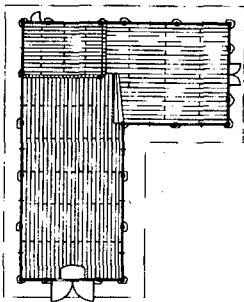
10) "일천구백팔년. 양 스월 삼일 음 삼월삼일 오시 상양 너희가 하나님의 성년된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 하심을 아지못 하는노 누구던지 하나님의 성년을 더럽게 하면 하늘이 그 사람을 멸하실지라. 하나님의 성년은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그러하니라. 전 고 50:16-17 주여 당신이 오실때까지 늘 거룩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끝에 “주여 당신이 올 때까지 늘 기록하게 하소서 아멘” 이란 기도문을 첨부하여 남자석과 같이 ‘주의 재림’을 바라는 來世指向的인 염원을 볼 수 있다.¹¹⁾

예배당 외벽은 출입구가 있는 박공면을 제외하고 매 칸마다 중방을 지르고 중방과 상인방 사이에 미서기창을 내었다. 예배 때 남녀신도의 시선을 차단하던 휘장은 1930년을 전후해서 제거되었고, 해방 후 남녀가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보면서 여자석의 한 칸을 막아 살림방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부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사진 3) 금산교회 내부



(그림 1) 금산교회 평면



(그림 2) 금산교회 입면

3-2. 두동교회

(1)교회 역사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385번지에 위치하는 두동교회는 1923년(癸亥)에 설립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는 ‘선교사 해리슨(Harrison, Rev. William Butler : 하위럼, 1866 - 1928년)과 助師 김정복이 복음을 전하자 부인들이 믿고 부곡리 교회에 왕래하다니 안신의 열심 진도로 신자가 늘어나자 박재신이 자기 집의 부속사를 빌려주어 같이 예배하였다’¹²⁾고 두동리교회의 설립을 기록하고 있다. 두동에 처음 복음을 전한 해리슨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회 소속으로 1894년에 입국하여 서울, 군산, 전주, 목포에서 활동하다가 1915년 다시 군산에 머물면서 1928년까지 선교하였다. 당시 이들의 전도를 받고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부곡교회까지 다닌 부인 중에는 예배처로 자신의 부속사를 빌려준 박재신의 어머니(황안나)와 아내(한재순), 그리고 고모인 박씨부인(월남 이상재선생의 子婦)이 끼어 있었다.¹³⁾

박재신은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근동 삼십리를 지나는데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동서지간이 된 임현숙, 신영애도 함께 부곡교회로 예배를 보러 다니자 박재신을 비롯한 박씨 집안 남자들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11) 이덕주, 월간 기독교사상, 기독교사상, 1998.9, p.263

12) 韓國教會史學會 編著, 前掲書 下卷, 1968, p.290

13) 이덕주, 前掲書, 1998. 10, p.251

부인들의 설득으로 박재신은 자기집 행랑채를 예배처소로 내놓았다. 전북노회에서 1923년 5월 18일로 두동교회의 분립을 허락하였다.

그후 불과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에 교인 수가 80여 명이 되자 박재신은 곳간으로 쓰던 창고에 마루를 깔고 예배처소를 넓혀 주었다. 또한 교회 안에 '성영학교'를 세우고 구연직(具然直)을 선생으로 모셔 교육하였다. 이처럼 두동교회는 초기에 박재신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29년 박재신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 이유는 부인이 교회에 나가면서 얻었던 아들이 7살 되던 해에 죽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부정하고 부인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의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던 소작인들도 교회에 나가면 논을 때일까봐 눈치를 보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인 수는 2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예배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남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인근의 땅을 마련하여 지금의 'ㄱ'자형 교회를 새로 지었다.

이 교회를 지을 당시 마침 안면도에서 나무를 싣고 오던 배가 군산 앞 바다에서 깨져서 그 나무들이 풍랑에 떠밀려서 성당포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헐값에 구입하여 교회를 지었으며, 당시 대목으로 충남 청포리교회에 출석하는 김장로가 관여하였다고 한다.¹⁴⁾

1964년에 교회 옆에 800여 평의 땅을 구입하여 벽돌로 720여 평의 새 교회를 짓고, 1991년에는 그 앞에 교육관을 지었다. 현재 'ㄱ'자형 두동교회는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9년에 군산노회에서 노회문화재로 지정하였다.

(2) 건축개요

두동교회도 금산교회와 같이 목구조로 된 'ㄱ'자형 한옥교회이다. 남녀 회중석을 직각으로 배치하여 서로 볼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두 축이 만나는 중심에 강단을 시설하여 'ㄱ'자가

뒤집힌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북서쪽 모서리의 강단은 1칸 규모이며, 남녀 회중석은 각각 3칸의 크기로서 같은 규모이다. 그러나 강단부의 주간(3,060mm)을 회중석(2,420 - 2,430mm)보다 2자 1치 정도 길게 잡았다. 강단은 회중석과 380mm 단차가 있으며 내부는 전면모서리를 사선으로 처리하여, 그 중앙에 강대상을 놓았다. 직사각형으로 강단을 만들고 강대상도 남자석을 향하여 배치하였던 금산교회와는 차이가 있다.

강대상 전면에는 역시 내진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다. 다른 기둥은 모두 方柱를 사용하였으나 이 기둥만은 八角柱를 사용하여 차별을 두었다. 이 기둥과 후면 평주 사이에 보가 걸리고 그 위에 대공을 세운 후 양 축에서 오는 중도리를 받게 하였으며, 그 위로 회침사래가 얹혀져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기둥과 평면이 꺾여지는 모서리 기둥사이에 휘장을 쳐서 남녀 신도가 예배 시 서로 볼 수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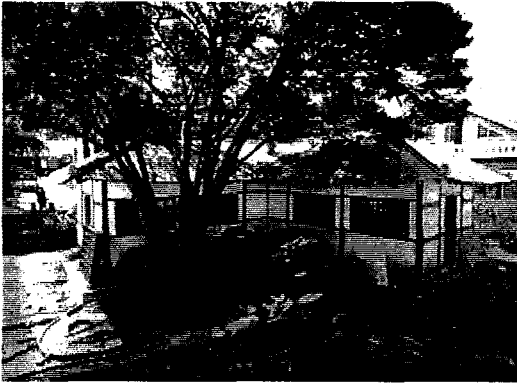
그러나 목사는 설교할 때 양쪽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금산교회의 경우 강단과 여자석 사이에도 휘장을 쳐 남자 목사가 여자석을 볼 수 없도록 하였지만 두동교회는 강단과 여자석 사이에 휘장이 없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전면에서 볼 때 'ㄱ'자 평면 중 남북축을 이루고 있는 곳은 남자석이고, 동서축은 여자석이다. 박공면에 각각의 출입문이 있어 남녀유별에 따라 출입문도 분리하였다. 또한 강단에 연이어 있는 남녀 회중석의 첫째 칸 외부에도 문이 하나씩 있는데, 이 문은 남녀인도자용 출입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산교회와 같이 강단 뒤쪽에 별도의 목사 출입문은 만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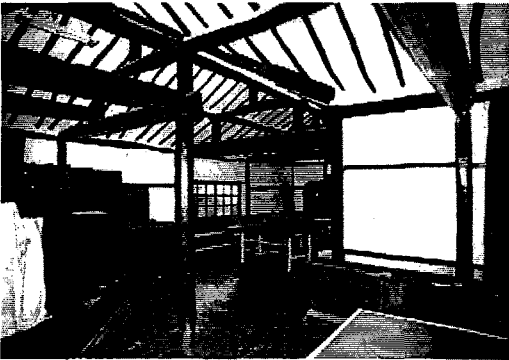
교회 내부는 장마루를 깔고, 통 칸으로 구성하였다. 5량 구조로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워 중보를 받게 했으며, 그 위에 다시 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는 보편적인 구조이다.

남자석 중도리 밑에 상량문이 남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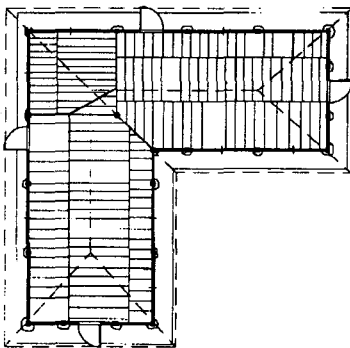
14) 박정호(원로)장로 면담, 1998년 9월 29일



(사진 4) 두동교회 전경



(사진 5) 두동교회 내부



(그림 3) 두동교회 평면

1929년 5월 14일에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양측 벽은 중방을 지르고 미서기

유리창을 달아 채광함으로써 내부는 밝은 편이다. 지붕은 홀처마 우진각 형태이며, 지금과 같이 처음부터 골합석 지붕이다.

4. 자료를 통해 본 'ㄱ'자형 교회

본 절에서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사진 및 문헌 등 자료상에 남아 있는 ㄱ자형 교회에 대해서 문헌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 건축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 1. 장대현교회

1894년에 평양에 설립되어 서북지역의 중심 교회가 된 장로교회이다. 미국 북장로선교회의 마펫(Samuel A. Moffett, 馬布三悅)선교사는 1893년 평양에 도착하여 선교부를 설치하고 전도를 시작하여 1894년 1월 4일, 7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처음에는 최치량(崔致良)의 주막에서 시작했으며, 이후 널다리골(板澗)에 있는 홍종대 소유의 기와집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¹⁵⁾ 따라서 널다리골(板橋澗)교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평양에서 중심이 된다고 하여 중앙교회, 제일 먼저 섰다고 하여 제일교회라고도 불렀다.¹⁶⁾

1900년에 이미 교인수가 1,000여명에 이르러 장대현 언덕에 새 교회를 건립하게 되었다. 교인들의 현금 3,000여 원과 선교사 보조금 등 총공사비 7,000여 원으로 72칸의 ㄱ자형 한식 예배당을 건립하였는데 3년만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이전함으로써 이때부터 장대현(章臺峴)교회라 불리워졌다.¹⁷⁾

이 교회는 높은 곳에 위치하며 중층의 높이를 가진 형태를 취함으로써 매우 웅장한 모습을 하였다. 지붕은 평면에 따라 ㄱ자형 팔작지

15) 한영제 編, 한국기독교 사진 100년, 기독교문사, 1992,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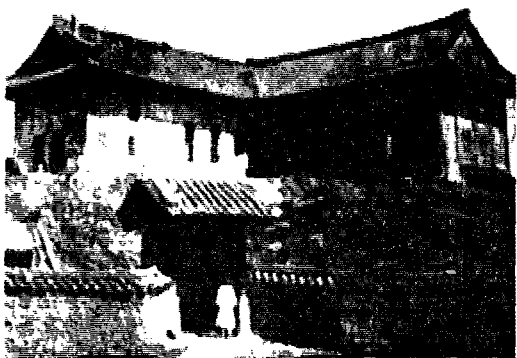
16) 이찬영, 한국기독교회사총람, 소망사, p. 210

17)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사전 13권, 기독교문사, 1992, p.524

붕이고, 내부는 남자석과 여자석을 양 날개에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회중석의 크기는 각각 4×6칸의 규모이며, 두 축이 직교하는 모서리에 강단을 배치하였다. 내부는 통칸으로 구성하였고 층고가 매우 높아 남자석 좌측 2칸 상부에는 갤러리를 4×2칸의 규모로 설치하여 중층의 구조이다.

출입구는 각각의 박공면에 있으며 경사진 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남자석 후면에 2층 갤러리로 바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고, 여자쪽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관은 시멘트 바닥이고 회중석에는 마루를 깔아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신도의 증가로 인해 신발장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의자를 설치해서 의자 밑에 신발장을 두었다. 강단은 회중석과 약 40cm 가량 단차가 있었으며 강대상은 남녀를 다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데, 남녀 회중석 사이에는 휘장이 설치되어 있었다.¹⁸⁾



(사진 6) 장대현교회

4 - 2. 전주 서문교회

1892년 한국에 도착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약 6개월간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선교지역이 결정되자 1893

년 6월에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李訥瑞) 목사의 어학교사며 조사였던 정해원을 전주에 파송하였다. 그가 전주부중 외곽지대인 은송리(현 완산동)에 미화 26불을 지불하고 초가 한 채를 마련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이 전주교회의 시작이다.

그후 선교사들이 내려오게 되었으나 동학농민혁명으로 약 1년간의 선교 공백기를 지내고 다시 도래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폈다. 1897년 7월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9월에 선교사들이 구입했던 당초의 가옥을 예배에만 사용하도록 개수하고 '전주교회'라 불렀다.

1900년 초에 10칸으로 개축하였으나 교세가 늘어나 비좁고 또한 도심에서 적극적인 선교를 펼치기 위하여 1905년 9월에 현재의 위치에 780평의 터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이때부터 '전주 서문외교회'(전주 서문밖예배당) 또는 '전주 부중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 교회는 장방형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벽체는 붉은 벽돌을 쌓았고 지붕은 한식기와를 얹었으며 지붕면에는 굴뚝이 솟아있다. 건평 57평의 이 교회는 총 공사비 3,500량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후 1907년 전국적인 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 교인들이 늘어나 1908년에는 평균 350 - 400여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며, 1909년 6월에는 주일성경공부 인원이 평균 5백 수십 명이 모이게 되었다. 교세의 급속한 성장으로 1911년 5월에 공사비 1,400원을 들여서 교회를 증축하였다. 기존의 장방형 예배당에다 30평을 증축하여 87평의 ㄱ자형 예배당이 되었다.

남녀 신도석을 양날개에 분리하고 그 사이를 휘장을 쳐서 시각적으로도 분리한 후 중앙 모서리에 강단을 배치한 일반적인 ㄱ자형 평면이다. 이 휘장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건의에 따라 1920년에 철거하였다고 한다.¹⁹⁾

마당에서 교회를 볼 때 좌측 날개부는 남자

18)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논, 1989, pp.67-68

석이고 우측은 여자석이었다. 사진 상으로 볼 때 남녀 신도석의 규모는 비슷하며, 출입구는 양 박공면에 구분하여 만들었다. 4칸 중, 중앙 2칸에 2개의 출입문이 있고 좌우 끝 칸에는 창을 만들었다. 지붕은 같은 높이로 이어지는 팔작지붕으로서 박공면을 벽돌로 처리하였다. 이 ㄱ자형 교회는 1935년까지 존속하였다. 교세가 점점 확장되자 1935년에 이 건물을 헐고 연건평 130평의 붉은 벽돌 2층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당시 총 공사비는 12,000원이 소요되었다. 1963년 교회건물 전면의 중탑을 높게 증축하였으며, 1981년에는 새로운 현대식 교회를 기공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790평의 웅장한 건물을 1983년에 완공하여 지금에 이른다.²⁰⁾



(사진 7) 전주 서문교회 (1911~1935)

4 - 3. 군산 구암교회

호남지역 선교를 담당한 미국 남장로회는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등 5곳에 선교거점

(Mission Station)을 확보하고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

군산교회와 군산선교부는 1896년 2월에 군산 부두에 자리잡고 있던 전킨 선교사의 사택에서 시작하였다. 당시는 남녀가 따로 방을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여자는 방문을 닫고 예배를 봤으나 창호지 문을 통하여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군산교회는 전킨(William McCleery Junkin, 全緯廉) 부부와 드루(A.Damer Drew) 의료선교사 부부, 그들의 어학교사이며 조사였던 장인택 등의 노력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그러나 1899년 5월 1일 군산항의 개항으로 일본인들이 몰려오자 구암(龜岩)으로 이거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100원으로 구암리 15번지 땅을 매입하여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ㄱ자형의 교회였다.²¹⁾

흔히 궁멸교회라고 불렀으며 어떤 이는 군창교회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는 구암으로 옮겼어도 한동안 군산교회라 불렀는데, 후에 지역명을 따라 구암교회라고 불렀다. 구암으로 이전한지 얼마 안되었을 무렵인 1900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95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교회는 부흥되었다. 교회가 협소하자 1904년에 오인묵의 헌금으로 10칸으로 증축하였다. 당시 교회의 모습은 (사진 8)과 같이 'ㄱ'자형 한옥 초가이다. 마당에서 볼 때 좌측 날개부가 여자석이고 우측이 남자석으로 남녀 신도석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협소하여 1916년 8월 7일 김성삼 장로의 집에서 교인 18명이 모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건축위원²²⁾을 선출하여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교인들의 헌금 이천삼백 원을 들여 60칸의 ㄱ자형 교회를 신축하기 시작하여²³⁾ 3년 만인

19) 김대전장로(77세) 증언, 1998년 12월 30일

20) 전주서문교회, 사진으로 본 전주서문교회100년, 전주서문교회, 1994, pp.168-171

21) 군산구암교회, 군산구암교회 약사, 1998, p.18

22) 건축위원은 김성삼 장로를 비롯하여 장인택, 염자환, 김봉권집사와 김도형, 이재근이었으며, 서기에 박연세 집사, 검부위원에 육기병, 김윤실, 감독위원은 양용칠 장로와 김치만이 각각 선임되었다.(군산구암교회, 군산구암교회약사, 1998, p. 12)

1919년 2월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다. 조선 예수교장로회사기에 반양제(半洋制) 예배당이라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주 구조재는 목조이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벽들을 쌓음으로써 절충식 구조를 보여주며 매 칸마다 창문을 만들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1910년대 이후 주로 사용되었던 오목판기와를 사용하고 있다. ㄱ자 평면의 양 박공면에 돌출된 포치가 있으며 예배당 지붕면 보다 낮게 맞배지붕을 얹었다. 이와 같이 남녀 출입구는 ㄱ자 평면 양단부에 분리되어 있으며, 강단 뒤쪽에 목사가 출입할 수 있는 문과 회중석 앞부분에 두동교회와 같이 또 하나의 출입문이 있다.

1959년 40년 동안 사용해오던 이 교회당을 철거하고 현대식 석조건물(지금의 구암교회)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63년 11월 19일 교회당을 헌당하였다.²⁴⁾



(사진 8) 한옥 ㄱ자형 구암교회



(사진 9) 1919년에 신축한 구암교회

4 - 4. 광주 북문안교회와 남문밖교회

북문안 교회는 1904년 12월 25일 양림리에 있던 벨(Eugene Bell, 裒裕社) 선교사 사택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림으로서 시작되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도심지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1906년 가을 북문안 사창골(현 충장로 3가)에 50여 평의 'ㄱ'자형 교회를 건축하여 이사하였다. 당시 교회는 목조 와가로서 남녀 회중석을 ㄱ자형 양 날개에 분리하여 배치하였는데 마당에서 볼 때 좌측이 남자석이고 우측이 여자석이다.²⁵⁾ ㄱ자형 우각부에 강단을 배치하고 강대상 전면에서부터 꺾어지는 모서리까지 휘장을 쳐서 남녀가 서로 볼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출입구도 양 박공면에 분리되어 있으며 강단 뒤쪽에 목사가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을 만들었다. (사진 10)과 같이 지붕은 강단을 포함한 남자석의 지붕이 여자석 보다 한 단 높게 구성되어 있다.

북문안 교회는 몇 년 사이에 500여명이 모이

25) 광주제일교회 90년사의 추정 평면도에는 여자 신도석이 좌측이고 남자 신도석이 우측으로 그려져 있으나 당시 추정 평면도를 작성하였던 한덕선장로와의 면담결과 남녀 신도석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진에서도 남자신도들이 좌측에 서고 여자들이 우측에 서 있으며 또한 갖을 쓴 남자 두 명이 좌측 문을 열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좌측이 남자석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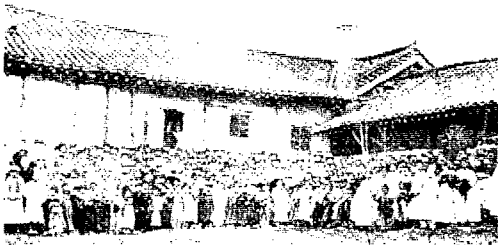
23) 한국교회사학회편, 전게서, 1968, p.180

24) 군산구암교회, 군산구암교회약사, 1998, pp.11-13

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3.1운동 때 북문 안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당시 국유지였던 교회 터를 일제에 의해 몰수당하고 1919년 10월경에 교회당을 해체하여 남문밖에 이전 건축하였다. 따라서 남문밖교회도 북문안 교회 형태와 같이 ㄱ자형 교회였다. 금동 협화 의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양림교회 90년 사에 나와있는 추정도를 보면 벽체를 중인방 높이까지 돌과 벽돌로서 반화방벽(半火防壁)과 같이 쌓고 그 위에 창문을 냈으며 지붕은 한식 기와로 팔작지붕을 구성하였다. 출입구는 양 박공면에 분리되어 있고, 강단 뒤쪽에 목사 출입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 내부도 역시 남녀 회중석 사이에 회장을 쳐서 서로 볼 수 없도록 하였으나 목사는설교할 때 양측을 다 볼 수 있도록 강대상을 배치하였다.²⁶⁾

남문밖교회는 1920년 노회 결의에 따라 북문밖교회(현 중앙교회)가 분립하고, 다시 1924년에 금정교회(현 제일교회)와 양림교회로 분립하게 된다. 그후 이 건물은 금정교회 건물로 사용되다가 도로계획에 의해 1931년 150m 정도 떨어진 현 위치에 51평의 장방형 교회를 신축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1906년 가을 북문 안 사당굴(현 흥정보3가)에 세워졌던 북문안 교회



(사진 10) 북문안교회

▼ 1919년 10월 북문 밖(옛 심화의원 자리, 현 구시청 북근)에 예배당을 신축하여 이전함.



(그림 4) 남문밖교회추정도(양림교회 90년사)

4 - 5. 서울 묘동교회

묘동 교회는 1910년에 연동교회에서 분립하였다. 이원공, 함우택, 오경선, 조종만, 김시재 등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원공의 사랑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 해 8월에 이원공이 한국 최초의 마가복음 주석을 출판하여 받은 판권료 200원을 건축비로 헌금하자 중부 정선방의동(貞善坊義洞) 대묘동(大廟洞) 21통 3호(현, 종로구 봉익동 19번지)의 이명혁의 땅 201평을 매입하고 'ㄱ'자형 교회를 신축하였다.

예배실 60평, 예배실 하부 반지하층 60평, 연면적 120평의 교회건물과 교역자 사택 12평 등 총 132평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²⁷⁾1910년 9월 12일에 상량예배가 이루어졌고, 10월 10일에 입당예배를 드렸다.²⁸⁾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교회 창립일로 정하였다. 당시 건축위원으로는 한석진목사와 선교사 밀러(E.H. Miler, 密義斗), 이원공, 함우택, 오경선, 박용희, 고경화 등이었고 건축 총 공사비는 5,000원이 소요되었다.

교회는 목조를 주로 사용하면서 박공면 등에 석계와 벽돌을 사용하고 있어 한옥의 근대화 과정을 볼 수 있다.(사진 12)

그러나 평면은 남녀 유별의 당시 사회적 전통에 따라 ㄱ자형 양 날개에 분리하였다. 대개 'ㄱ'자형 교회의 출입구는 양 박공면에 남녀가

27) 묘동교회, 묘동교회80년사, 1990, p.194

28) 묘동교회, 上揭書, p. 159

26) 광주 양림교회, 전게서, 1995, p.211

분리되어 있으나 묘동교회는 장면에 출입구가 있었다. 반지하층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예배당 출입을 위해서는 목조계단을 이용하여야 했다. 박공면에서 볼 때 벽체 하부에 자연석을 다듬어 쌓고 그 위에 중방의 높이까지 벽돌을 쌓았으며, 그 위 전체를 유리창을 설치하고 박공에는 '禮拜堂'이란 편액을 걸어 놓았다. 그러나 마당을 둘러싼 정면과 후면은 칸마다 4짝 띠살 분합문을 설치하고 있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이은 맞배지붕이고 함석으로 처마를 덧달아냈다.

이 후 1945년 4월에 소방도로공사로 인해 교회건물 일부와 사택 등이 강제로 철거되었다. 1947년에 골조를 그대로 나누고 벽체를 시멘트 벽과 유리창으로 개축하였으며, 1960년에는 舊 건물물을 철거하고 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62년에 완공하였다. 묘동교회는 1981년에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하였다.²⁹⁾



첫면 'T'자형 예배당과 교유동

(사진 11) 묘동교회

4 - 6. 황해도 소래교회(송천교회)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소래)³⁰⁾에 서상문(徐相崙), 서경조(徐景祚) 형제의 전도로 1883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이다.³¹⁾ 초기에는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29) 묘동교회, 前掲書, pp 451~462

30) 이 교장의 본래 이름은 '솔샘'(松泉)이었다. 그러나 일제때 松泉을 松川으로 표기하면서 솔샘은 솔내가 되었고, 솔내는 다시 음운 현상으로 '소래'로 변하게 된다.

31) 소래교회의 설립년도에 대해서는 1885년, 1884년,

나중에는 서경조의 사랑채로 옮겨 예배를 보았다. 이 때 교세가 8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58세대가 사는 소래에 50세대가 신자가 되면서 보다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³²⁾ 교회 건축을 언제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95년 6월 23일에 완공하여 7월 3일에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교회는 일자형 8칸 집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주일예배에 200여 명이 모이는 교세를 이루게 되자 이듬해인 1896년에 8칸을 증축하였다.³³⁾

기존의 장방형 교회 평면 끝에 장축과 직교하여 양측으로 증축함으로써 교회는 'T'자형의 평면을 하게 된다. 그러나 'T'자형 평면 한쪽을 선교사 숙소 또는 준비실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예배당 공간은 'ㄱ'자형이라 할 수 있다.

1934년 소래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회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할 때 기존의 예배당을 보존하기로 하고 부지 한쪽에 기념 예배당³⁴⁾을 건립하였으나 지금 북한에 있는 옛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1984년 황해도회에서 소래교회당을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고증을 거쳐 1988년에 총신대학 양지캠퍼스 구내에 이 교회를 복원하였다.

복원된 교회의 모습은 (사진 12, 그림 5)와 같다. 전체 평면의 규모가 14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8칸을 증축하면서 기존의 장방형 예배당과 2칸의 공간이 중첩되면서 실제 14칸의 규모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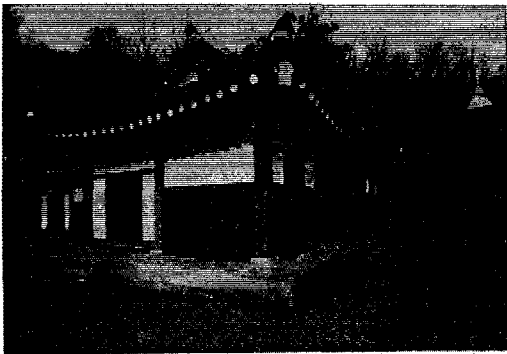
1883년 등 여러 주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실된 당회록 등에 근거한 김대인 등의 1883년 설을 따른다.(김대인, 숨겨진 한국교회사, 한울, 1995)

32)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대한기독교서회, 1966, p.47

33) 상량문 "救世主 耶穌 基督降生 一千八百九十六年 六月六日二十三日 上午十點 上樑 陰乙未四月營建 此殿 又於今年修作前面八間" (김대인, 上掲書, p112)

34) 총회 제 23회(1934) 회의록 부록 각 노회 상황보고에 의하면 "장연군 송천교회에서는 함석제 70평 예배당이 건축되었다"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제 23회 총회록, p.150)

처음 장방형 평면 중심에는 3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휘장을 쳐 남녀 회중석을 분리하였었다. 그러나 증축 후에는 기존의 회중석을 남자석으로 하고, 증축된 부분을 여자들이 사용함으로써 남녀 회중석을 평면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였다. 평면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예배당의 출입구도 변화를 가져온다. 남자석은 장변의 첫째 칸에 출입구가 있고, 여자석 출입구는 박공면에 있다. 증축부의 장변에 빗마루를 설치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이 정면이 된다. 대개 ㄱ자형 교회는 정면성이 돌출된 단변부에서 강조되는 것과 다르게 소래교회는 전체가 'T'자형 평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단순한 일자형의 팔작집 같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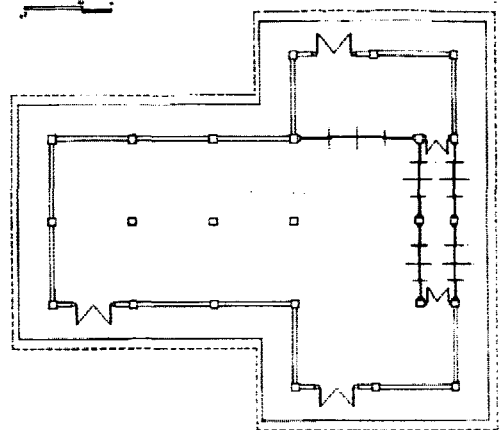


(사진 12) 복원된 소래교회

온돌로 된 숙소 또는 준비실과 예배당 사이에는 네짝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예배 공간은 ㄱ자 형태를 갖게 된다. 강단은 ㄱ자 평면의 우각부에 설치하였고 설교대는 남자석을 향해서 배치하였다. 지금은 회중석과 단차가 없으나 본래는 단이 구분되어 있었다.³⁵⁾

소래교회는 기존 장방형교회의 용마루와 증축된 지붕의 용마루가 교차되는 지점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재질은 기와로 구워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다른 교회에서 십자가가 이상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외부와 내부에 설치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소래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복원된 소래교회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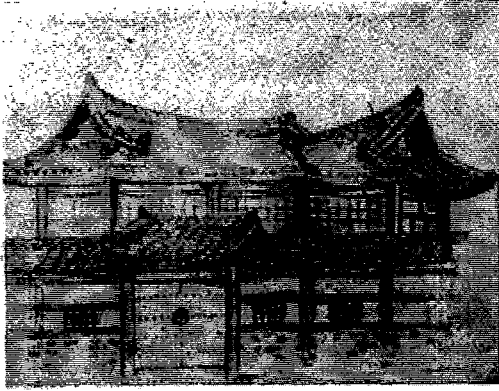
4 - 7. 기타

前述한 'ㄱ'자형 교회 외에도 초기 교회건축 가운데 'ㄱ'자형 교회는 상당수가 존재했다. 미국 북감리회에 설립된 서울 아현교회(그림 6)를 비롯하여 서울 광희문교회, 함흥 중앙교회(신창리교회, 사진 13), 만주 용정교회(사진 14) 등도 초기 예배당의 모습은 ㄱ자형 평면이었다. 원산지역에도 ㄱ자형 교회가 건립되었었다. (사진 15)는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펜윅(Malcolm C. Fenwick) 선교사와 그를 도와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31개 이상 세운 신명균 목사가 원산에 세운 교회중 하나이다. 펜윅 선교사는 토착적인 농촌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도하였는데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적인 방식을 통해 선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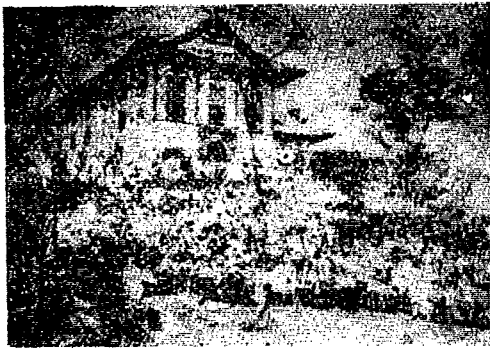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그의 사고에 비추어 볼 때 남녀 유별의 유교적 전통을 따르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ㄱ자형 교회는 이외에도 여러 곳에 건립

35) 김대인 목사, 인터뷰 내용, 1999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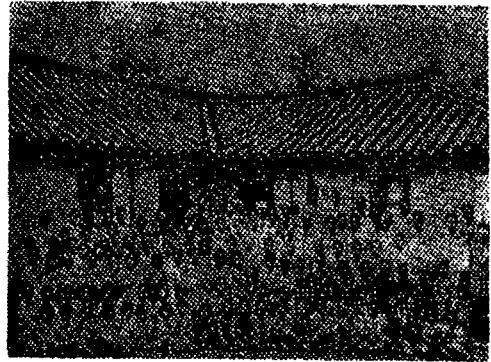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³⁶⁾



(그림 6) 초기 아현교회 (1905~1925)



(사진 13) 함흥 중앙교회 (1907~1930)



↑ 최초의 용정교회

(사진 14) 만주 용정교회(1925 ~1931)



신 목사가 세운 교회

(사진 15) 원산지역 교회

이상의 ㄱ자형 교회의 건축적 특성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6) 펜워 선교사와 신명균 목사가 미국 보스톤의 클라렌튼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던 엘라 썬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로부터 1901년에 인계받아 선교 및 교육하였던 공주침례교회도 ㄱ자형 교회였다.

(표 1) ㄱ자형 교회의 건축 특징

교회명	교파	설립년도	ㄱ자형교회 건축년대	구조	지붕	남녀회중석위치 (마당에서 볼때)		출입구	남녀석 사이 회장유무	기타
						좌	우			
남산교회	장로교 (美남장로회)	1905	1908-현존	목조	초가→개조 우진각(시멘트기와)	남	여	박공면	1930년경 제 거.강당과 여 신도석 사이 에도 회장을 쳤습.	강단뒤에 목 사 출입문
부동교회	장로교 (美남장로회)	1923	1929-현존	목조	우진각(골합석)	남	여	박공면	有	남녀 인도자 용 출입문
장대현교회	장로교 (美북장로회)	1894	1900~?	목조	팔작(기와)	남	여	박공면	有	남자석 일부 2층구조(72 칸)
전주서문교회	장로교 (美남장로회)	1893	1911-1935	벽돌조	팔작(기와)	남	여	박공면	1920년 철거	기존의 장방 형평면을 증 축하여 ㄱ자 형이 됨.87평
군산구암교회	장로교 (美남장로회)	1896	1899-1904	목조	초가	여	남	장변		10칸(1904 증축)
			1919-1959	벽돌+목조	팔작(오목판기와)			양 박공면에 들출된 포치		60칸(半洋制 교회)
광주북문안교회 남문밖교회	장로교 (美남장로회)	1904	1906-1919	돌+벽돌+ 목조	맞배(기와)	남	여	박공면	有	남자석과 강 단의 지붕이 여자석보다 1단 높게 구 성
			1919-1931	"	팔작(기와)			박공면	有	강단 뒤쪽에 목사 출입문
서울요동교회	장로교	1910	1910-1947 (개축)	돌+벽돌+ 목조	맞배 (기와+합석처마)			장변		연면적120평 (예배당 60 평, 반지하층 60평)
소대교회	장로교	1883	1896(중축) 1988년 복원 (총신대)	벽돌+목조	팔작(기와)	남	여	남자(장변) 여자(박공면)	有	전체는 T자 형이나 예배 공간은 ㄱ자 형을 하고 있습.
서울아현교회	감리교 (美북감리회)	1905	1905-1925	목조	팔작(기와)	남	여	박공면	有	
함흥중앙교회	장로교 (캐나다장로 회)	1896	1907-1930	목조	팔작(기와)					
반주용정교회	성결교	1924	1925-1931	목조	팔작(기와)					초가를 예배 당으로 개조 (10칸)

5. 결론

'ㄱ'자형 교회는 토착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따라 전통과 새로운 문화

(개신교)가 결합되면서 나타났던 하나의 과정
적 평면으로 한국 교회건축 만의 독특한 유형

이다. 'ㄱ'자형 교회는 개신교의 전래 초부터 1920년말까지 교파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흥에 따른 교회의 재건축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ㄱ자형의 교회가 거의 사라졌으며 1930년 이후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ㄱ자형 교회는 건립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ㄱ자형 교회로는 금산교회와 두동교회가 있으며, 그 중 두동교회는 가장 늦게 건립된 ㄱ자형 교회로 판단된다.

ㄱ자형 교회는 대부분 한식 목구조이며, 전주 서문교회와 서울 묘동교회, 군산 구암교회 등 1910년 이후에 건립된 교회 등은 주 골조는 목조이나 벽돌을 혼용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른 근대적 경향을 볼 수 있다.

ㄱ자형 평면은 기존의 장방형 평면을 증축하여 ㄱ자형이 되기도 하지만 (전주 서문교회와 같이) 대부분은 처음부터 ㄱ자형으로 건립한 것이다. 평면은 ㄱ자형 양 날개에 남녀 회중석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두 축이 만나는 우각부에 강단을 설치한 형태를 하고 있다. 군산 구암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회들은 마당에서 볼 때 좌측 부분이 남자석이 되고, 우측 부분이 여자석이 된다. 남녀석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었으며, 강단과 여자석 사이에도 휘장을 치기도 했다.

금산교회와 두동교회에서는 강단 앞 모서리에 하나의 내진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과 ㄱ자로 평면이 꺾어지는 기둥 사이에 휘장을 쳤었다. 이 기둥은 회침부를 받치는 구조적 기능 뿐 만 아니라 남녀 공간을 구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기둥의 형태도 다른 기둥과 달리 원주 또는 팔각주를 사용하였다.

휘장은 대개 1920년대에 제거된다. 그러나 두동교회는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1929년에 ㄱ자 교회를 건립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녀 출입구는 대부분 양 박공면에 분리되어 있으며, 강단 뒤쪽에 목사의 출입을 위한 별도의 문을 만들거나 남녀 회중석 앞쪽에 인도자

의 출입문을 두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는 ㄱ자형 개신교회에 관한 연구이다. 추후 초기 성당에서 나타나는 ㄱ자형 성당건축³⁷⁾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체적인 ㄱ자형 교회건축의 특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한영제,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기독교문사, 1993.
2. 한영제, 『한국기독교 사진 100년』, 기독교문사, 1992
3. 이덕주, 월간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 1998. 8-11월호
4.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기독교문사, 1994. 12
5.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95
6. 김해연, 『한국교회사』, 성광문화사, 1997
7. 말콤펜워, 『한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4
8. 한국교회사학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8
9. 김대인, 『숨겨진 한국교회사』, 한들, 1995
10. 이상규, 『한국교회의 역사적 흐름』, 총회출판국, 1998
11.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12. 한국기독교 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기독교 100년사』, 한국기독교 장로회 출판사, 1992
13. 김수진, 『전북 개신교 100년사』, 전북일보사, 1994년 1월- 1994년 12월 전북일보 주간

37) 뷔텔 주교의 일기에 의하면 금구 수류 옛 성당과 안학 매화동 소재 옛 성당 등이 ㄱ자형 평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재

14.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기독교문사, 1992
15. 홍순명,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논, 1990
16.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개신교 교회건축의 특징』, 서울대학교 석·논, 1989
17. 묘동교회 역사편찬 위원회, 『묘동교회 80년사』, 묘동교회, 1990
18. 양림교회, 『양림교회 90년사』, 양림교회, 1995년
19. 아현교회, 『아현70년』, 아현교회, 1975
20. 서문교회 역사편찬 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 서문교회, 1994
21. 군산구암교회, 98교회생활, 군산구암교회, 1998
22. 두동교회, 97교회생활, 두동교회, 1997

A study on the ㄱ-shaped Church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Hong, Seung Jai

(Assistant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Yee, Myoung Kwan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ㄱ-shaped church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Since the Protestantism had been introduced into Korea, the style of ㄱ-shaped church was the popular style that have been fashioned in all the country of Korea.

When the Protestantism was introduced into Korea, ideology which ruled over the Society of Chosun Dynasty was the Confucianism that emphasized the precepts, for example, the loyalty for the King,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and so on. The Korean Protestants built the church which had ㄱ-shaped plan, so that they solved the second problem :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he style of the ㄱ-shaped chur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which distinguish the Korean church from other nations'.

Actually the ㄱ-shaped churches had been built by Korean Protestant denominations, from the early days of introducing the Protestantism till the end of 1920's.

Even though most of the style of the ㄱ-shaped church is replaced with the modern style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religious influence, luckily the ㄱ-shaped two churches : Kumsan Church(1908), Toodong Church(1929) are in existence in the Provice of ChonB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ㄱ-shaped church clear. This study is based on the actual survey of the ㄱ-shaped churches in existence: Kumsan Church, the Toodong Church and on the documents, photographs, interviews and so on for investigation not existing one now.

The ㄱ-shaped church have the plan to separate men's side from women's with a right angle and have a pulpit which was placed at the meeting point of the front part of men's and women's sides. Generally, seen from the court, the churches have men's side in left and women's one in right. There was a screen blocking both sides in the church. But it disappeared in 1920'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ocial conventionality. Most of its structural form is the Korean wooden style.

The ㄱ-shaped church appeared in a transition period of the Korean church architecture.